

# 파격없는 혁신안... 텃밭민심 “기대 못미쳤다”

### 광주서 발표한 첫 새정치 혁신안 대부분이 단골메뉴

### “현 상황에 맞는 면밀한 진단없이 총선 공천에 국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광주에서 ‘기득권 타파와 기강확립’ 방안을 중심으로 첫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은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혁신위가 당이 직면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없이 ‘재탕삼탕식’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의 의견수렴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의 경우가 대표적인 ‘재탕식’ 혁신안으로 꼽혔다.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당시 구상에 포함됐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혁신위에서는 기존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한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혁신안이 강조했던 내용들이었다.

또한,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교체지수’ 도입은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적용한 바 있고, 최근 혁신안에서 당협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추진했다는 점 등에서 여당의 혁신안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교체지수’ 잣대가 호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필요성을 강조한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가 공천과정에서 적용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중 개인 지지도가 지역 내 당 지지도를 넘어설 수 있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 지지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 40% 중반대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달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 광주·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내에 표본오차는 ±4.2%포인트, 응답률 15.9%)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2.7%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60.0%)가 전남(47.3%)보다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정당 지지도는 ‘지지정당 없음’의 무당파층이 4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42.1%의 지지율을 보였다.

따라서 ‘교체지수’가 수20대 총선에서 적용될 경우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 선부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근 혁신위원장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지지도가 좀 내려갔다”면서 “교체지수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지역별 특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

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의 첫 혁신안 발표에 대해 당직자 출신 A씨는 “당원중심으로 갈 것인지, 현재처럼 간부정당이나 원내 국회의원 중심체제로 갈 것인지, 근본적으로 정당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이지, 무작정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만 발표한다고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한 지방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그동안 이미 나왔던 것들이 많다”면서 “광주·전남 100인 월탁회의가 전남 오후에 열렸는데, 다음날 아침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심도 있고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최재성, 또 다른 ‘분란 카드’되나

### 文, 비주류 반대 불구 임명 강행 내분 격화 전망

비노(비노무형)계 등 비주류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을 임명함에 따라 당 내분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야권 신당론이 급속하게 퍼져가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결국 관철함에 따라 비노 측의 집단 반발과 함께 분당 분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전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 대표가 ‘최재성 카드’ 고수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 의원 불가론을 펴며 대안으로 우윤근·김동철·노영민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표가 최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 카드로 역제안하면서 이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후보로 제안한 3명의 인사와 최재성 전략홍보본부장 조합에 대해 각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온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이날까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원안대로 최 의원 카드를 실행하겠다고 이 원내대표에게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도 이를 수락하며 문 대표에게 “조건부 위임”을 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막판 절충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사발표가 나오자 이 원내대표는 “인사와 관련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지만 서로간에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문제는 사무총장 자리 내년 총선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라는 점. 그런데 당내에서는 최재성 의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아 후보 공천에 깊숙이 개입, 당시 비주류 측의 반발을 샀으며 이 때문에 비주류 측은 최 의원을 ‘비주류 제1카드’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본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문 대표의 ‘최재성 카드’ 관철은 당의 분란을 더욱 부채질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신당론이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이 총선 불출마 조건부인지에 대해서 본인도 문 대표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에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65년 경기 가평 ▲서울고 ▲동국대 총학생회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대변인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무성 “국회법, 거부권 행사 안 되길 바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국회로 재의결 요청이) 안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섭에 참석후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요청) 언제 올지 그건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는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을 자동폐기할 것이라 전망에 대해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고위당정청회의의 재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정청 회의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메르스 대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를 거부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친 박근혜)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안 된다’는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친박계 좌장격인 서정원 최고위원이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광주시당 신임 사무처장 김대원씨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22일 신임 사무처장에 김대원(45) 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국방)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광

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와 숭실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새누리당(구 민자당) 공채로 입사해 중앙당 정책팀장, 청년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대철 “천정배, 혁신위 잘 안되면 신당 필요하다고 해”

### “호남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 신당 움직임 예의주시”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23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라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

와 천 의원이 지난 19일 냉면집에서 자신과 이철 전 의원 등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총선이나 대선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구성한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상임고문은 “천 의원이 아주 조심스

럽고 말을 아끼더라”면서 “(신당 의지를 표명하기에) 당장 (장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좀 더 두고 보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개혁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는 과학적인 것”이라면서 “혁신위도 운동권·강경파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잘 해

결돼야 신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은 천 의원이 신당 창당에 들어갈 경우 새정치연합 내내 동요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호남에서 보니까 전직 중에서 이철·염동연·홍기훈 전 의원, 그리고 광주의 박주선 의원이 그렇게 할 모양”이라면서 “(전원적 포함)호남 스물 몇 명의 의원들이 지금 새로운 신당 혹은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424㎡ 건물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리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폐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전국 ▶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